

남여 · 전여대협

수련회

간담회

## 전여대협 일꾼 수련회를 준비하며

↳ 전남대에서 간행

전여대협 일꾼 수련회를 남여대협에서 힘차게 받아안고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전여대협 중 상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빠듯한 시간과 간부역량의 부족으로 기층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예상됩니다.

오월의 딸, 자주 새바람 남여대협 일꾼님들!

나를 세워 조직을 강화하리라는 결의가 앞선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간부들을 애정을 가지고 묶어내어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기 고민과 대학 상반기 총화를 내실있게 전개하여 하반기 구도를 그려낼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나의 조직, 전여대협을 강화하기 위한 수련회를 이 지역, 우리 대학에서부터 가슴으로 받아안고 총여에서 논의를 이룩하게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선전과 운영위를 소집하여 수련회의 의의와 목표를 교양하고 결의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 수련회의 의의

1. 96년 투쟁의 과정속에서 달려왔던 여학생운동을 총화하는 상반기 총화의 장이며 이후 전망에 대한 결의를 밝히는 장이 될것입니다.

개강사업과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내오는 총회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노수석열사의 타살 등 이어지는 열사투쟁과 교육재정확보,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하는 투쟁, 이 속에서 여성유린의 역사, 민족 자주권 유린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을 힘있게 벌여냈다. 이 과정에서 여학간부들이 헌신적인 투쟁속에 많은 모범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한켠에는 남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반기 동안의 총화를 내실있게 모아내며 이후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밝혀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

2. 여학생운동을 책임지고 나가고 있는 여학일꾼들의 대동단결, 단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학생회와의 관계, 간부들의 고민, 여학생회의 방향을 잡아내고 활동하는 속에서 고민들을 가지고 많은 밤을 새웠을 우리 여학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총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여학생일꾼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장이며 하나의 모습으로 단결해들어가는 장이 될 것이다.

3. 통일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우리 여학간부들로부터 통일 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될 것이다. 철의 전사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를 선봉으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과 제 2의 정신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통일투쟁에 하나같이 일떠설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 수련회 목표

1. 지역에서 내실있는 상반기 총화로 여학간부의 모범발굴과 혁신의 상을 잡아내고 여학일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자.

지역에서 준비된 구체적인 사업과 간부의 활동총화를 기반으로 여학간부의 이후 혁신의 상을 밝혀내고 여학간부로서 자긍심을 말미 아닌 신심으로 받아안고 이후 구체적인 결의를 모아 나가자.

2. 여학생운동의 현재적 진단과 당면 여학생운동의 과제, 발전전망에 대해 밝혀보자.

상반기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 나서는 어려움과 과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변혁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발전 전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단위에서 기간의 고민을 치열하게 총화하고 준비하여야 만이 여학생운동의 질적 도약을 내올수 있을 것이다.

3.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드높은 결의를 모아내고 이후 사업의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정신대 투쟁의 성과를 명확히 집어내는 속에서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제2의 정신대 문제를 막아내기 위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투쟁 등 당면한 투쟁내용을 공유하고 철의 전사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대중적인 결의를 모아나가자.

▣ 내용적 기초 - # 여학간부들의 실천적인 모범과 성과를 중심으로 여학생일꾼의 자긍심을 드높이자.

#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학생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세워내자.

# 지역간의 여학생운동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수련회의 성과를 배가하자.

- ▣ 상반기 총화 - 사상적 기초에 맞게 전개
  - 조직적 운영과 간부사업에 대한 총화
  - 정신대 투쟁의 방향
  - 대중운동의 내용과 형식
  - 하반기 사업, 투쟁의 결의

- ▣ 여학생운동의 내용과 과제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 조직운영과 간부사업
  - 대중운동의 방향
  -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이해

- ▣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결의 - 통일투쟁
  - 전여대협 통선대 발대식

▣ 열정 - 29일 전남대 오후 1시 집결  
상반기 총화, 모범사례 발표.  
저녁식사  
통일강연회

자주적 여학생운동 강연

분임토의

30일 선택강의 ① 과여학생운동  
② 여학간부론

분임토의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발대식

\* 구체적인 시간배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0일 3시정도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회비는 만삼천원입니다. 회비때문에 못온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되요. ∴

**▣ 조직화 방도** - 학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대학 층여에서 논의를 긴급하게 전개하여 단대, 과간부들을 세울데에 대해 간부들의 고민수위에 맞는 구체적인 정치사업을 할수 있도록 내용을 생산한다. 생활하고 있는 간부들은 활동방식과 내용을 세심히 주어야 한다. 하나의 실무를 준비하더라도 간부를 세워내는 과정이어야 하고 전체 간부들과 공유하여 전체간부들의 관심과 여학단위의 집단적인 힘으로 조직되어 수련회의 성과를 대학으로 꼼꼼히 챙겨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을 발굴, 단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자님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 대학별로 준비되어야 할 실무문공** - 대표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의로 분공됨이 안타깝지만 결의를 확보하여 기쁘게 받아안았으면 합니다.

기획자보 ⇒ 하나의 실무로만 받아들이면 골치아프지만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자포조사를 분공하면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의 수위를 한단계 높여낼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됩니다. 다양한 형식과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성을 들이는 의식화 사업이 되어야지요.

전여대협 통일투쟁에 대하여 -

이북여성바로알기 -

심각한 성폭력의 양상과 그 본질-

역사속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전여대협에 대하여 -

프랑, 자보 준비 ⇒ 정치구호.

거짓말 백번하면 정말 되버린다? 한국인을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몰아부치는 일본의원망언을 철회하라.

글로벌 대미, 대일 외교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하여 일본의 재침의도 막아내고 정신대문제 완전 해결하자.

민족의 아픔, 남북이 하나되어 정신대문제 해결하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8.15 대회 남, 북, 해외 여대생이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사시키자.

남과 북의 여대생이 한자리에 모여 범청학련 연석회의 성사시키자.

오라 남으로 만나자 서울에서 남과북 여대생들이여 !

남과 북 청년여학생 자주교류 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천만 여성과 4천만 민중의 자랑스런 조직,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인륜파괴적인 성폭력 대안없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들가폭등에 성폭력위협에 2천만 여성 고통받는다 민생파탄주범 김영삼 타도하자.

한반도 성폭력의 근원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상품만 되면 퇴폐향락문화 조장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 환영인사 자보, 프랑준비

☞ 전대의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남여대협 전 대학이 일심단결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월의딸, 자주새바람=-----**

**모기                    광 / 주 / 전 / 남 / 지 / 역 / 여 / 며 / 생 / 며 / 포 / 자 / 협 / 의 / 회**